히틀러 유전자

(행19:8~20)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히틀러 유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목을 좀 더 보강을 하자면 '히틀러의 영적인 유전자'
예수님을 믿는데, 히틀러의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히틀러의 유전자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독일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히틀러가 나치정당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나치정당의 수반으로서 독일내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지요.
정권을 공고한 기반 위에 놓고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첫 번째로 국내에서 주어진 과제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가톨릭까지 쳐가지고 전 국민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톨릭과

개신교 빼놓으면 거의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권의 공고함과 아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나치당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독일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충성과 헌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속 믿고 섬기고 그 이름에 충성하는 한, 독일 내의 주인이 둘이 생겨버립니다,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때 교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탄압만 해서는 안돼요.
전 국민이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교회에 대한 입장은, 탄압과 회유의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입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탄압과 회유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히틀러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로 뭉쳐서 대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뭉쳐서 히틀러와 마주서야 되는 것인데,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바칠 존재가, 대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교회'가 등장을 하고, 히틀러의 민족 우월주위에 입각한, 극우적 정치철학에 편승하는 교회의 부분이 생겨납니다, 이게 '국가교회'에요.
고백교회와 국가교회가 서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요.
이때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히틀러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히틀러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 히틀러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용해야 한다. 신앙문제 때문이 아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의 운동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보세요!
'부활절은 더 이상 예수의 부활과 관계없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개혁을 의미한다. 구

세주의 탄생을 뜻하는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의 탄생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웅적 모습과 자유의 정신이 탄생하는 것을 말한다'

대단하지요? 교회가 갖고 있는 전체 사상을,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나치정당의 정권확보와 유지와 확산을 위해서 끌어당기고 이용을 해버리는데, 이러한 히틀러의 철학에 편승하는 기독교인이 생겨납니다.

그냥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의 지도자급, 전 세계적으로 신학계를 주름잡던 신학자들이 다 이 나치정권에 편승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히틀러의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입장, 탄압과 동시에 회유.

원수취급을 함과 동시에 친구로 끌어당기는 이 교회에 대한 입장, 히틀러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철학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편만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히틀러'적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는 교회의 핵심진리에 대하여 원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원수인데,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틀러의 영적 유전자, 교회에 원수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 친구가 되는, 그런 유전자가 나타납니까?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물세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의 그 물세례를 뜻합니다.

이 물세례의 의미, 요한 세례의 의미가 마음에 적용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히틀러의 영적 유전자를 껴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됩니다.

요한 세례가 뭐였어요?

요한 세례의 의미가 내게 적용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돌이키는 겁니다.
비어 있는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기쁘고, 그럼으로써 평강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 있었고 인간사회가 정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 세례의 의미가 내 마음에 적용될 때, 돌이키게 됩니다.
내 마음의 빈 부분을 이제는, 이 인간사회에서 정한 가치들로 채워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소개된,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그 하늘에서부터 끌어당겨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요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킴이 없이, 요한 세례의 의미가 내게 적용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진리에 대하여 원수노릇을 하고, 동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힘을 붙잡는, 마치 예수님의 친구처럼 행동하는 이율배반적 히틀러 영성의 유전자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지역에서의 사도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펼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실제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나라에 대한 강론을 펼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비방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인간세상 안에서 하늘나라의 샘이 되어, 하늘나라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뜻과 하늘나라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샘솟듯이 솟아오를 때, 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방과 이용하려함이 같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히틀러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자, 왜 비방하고 탄압하고 박해를 하게 될까요?

왜 멀리하게 될까요, 기독교의 핵심진리를.

기독교의 핵심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요한 세례가 바로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받아들이고 맞닥뜨리기 전에,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단계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 인간사회에서, 내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정해 놓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돈, 건강,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줘서 떴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미모,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든 가치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결별한다는 뜻이고,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들을 붙잡고 있던 마음을 다 모아서, 돈에 붙잡혀 있던 마음 끌어당기고, 승진에 붙잡혀 있던 마음 끌어당기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붙어 있던 마음 끌어당겨서, 이 인간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것들에 대해 죽고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 마음에서 좋아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좋아하기로 작정하는 결심이 없으면 십자가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메스와 같아요, 메스.

내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과 나의 마음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다 칼로 끊어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일상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자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인간사회에서 내 옆에 있는 김 과장, 박 부장님, 김 대리…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해 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만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잡은 자에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내 기쁨은 승진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못합니다.

본문에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곱 아들들이 또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오히려 달라붙어 가지고,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달려들어서 이겨버리는 그런 진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칭한 제사장입니다.
진짜 24반차를 따르는 레위인 중에 선정되어진 그런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이방나라에 와서 귀신이나 쫓아내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를 가장해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사칭을 한 것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이름을 붙잡습니다. 왜?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요한 세례를 외면해 버리면, 돌이키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가의 예수님이 같이 간과되어 버리고 외면당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힘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 이름이 불려 질 때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습니다.
돈 붙잡고 있고, 건강 붙잡고 있고, 미모 붙잡고 있고, 승진 붙잡고 있고, 가족 붙잡고 있고, 모든 걸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다~ 이 세상의 가치들에 다 흐트러져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게 히틀러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들이댈 때, 십자가를 뿌리칩니다.
십자가도 어느 선에서 이용하느냐 하면, 내 죄가 사함 받아서 내가 죽은 뒤에도 멸망하지 않

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포기해 버리고 십자가를 외면해 버립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돈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위해서 일하게 되므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싫은 겁이다, 마음에서 가족을 놓기 싫은 겁니다. 가족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받는 질문이 그거에요.

며칠 전에도 뉴질랜드 Christ Church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듣는 권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떠나셔서 9개국을 순방하신 뒤에 한국을 들렀습니다.
한국에 일주일 머무시는 동안에 강릉을 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뉴질랜드 Christ church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로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부딪치는 게 뭐냐 하면(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는 것,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우리 마음이 그 사람들에 대해, 가족들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약속한 뒤에 25년 만에 백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마음에서는 죽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마음에서 떼어 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는 아들을 죽인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려서 죽이지 않았지마는, 마음에서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식을 다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 좋은 가족들, 다 놔 버리는 게 가족이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놔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가족은 이 세상에서 내게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니까, 내가 마음에서 그것을 놓을 때에, 그들을 놓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있던 내 마음을 끌어 당겨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혀~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사랑할만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만큼 사랑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그 자식에 대해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자식에게 가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 좋아요, 돈이 누가 나쁘대요, 돈 좋아요.
성경에 돈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고 말한 거지, 돈이 나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돈이 좋은 겁니다, 건강이 좋아요, 예쁘게 생기면 좋은 거지요.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미모도 아무것도 아니고, 승진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마음을 안 두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랑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마음을 잡아당기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십자가에서 그것들에 대해 죽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래!'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가 적용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돌이키려는 결심이 있어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돌이킴이 우리에게 결심이 될 때, 결심 됐다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돌이키려는 마음은 있어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을 때에, 히틀러의 유전자가 나타나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복음은 외면해 버리고, 그러나 그 힘은 이용해서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확장시키려고 하는, 예수 이름을 오용하는 히틀러식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히틀러의 유전자가 나타나면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 세례의 의미인 '돌이킴'이 우리에게 결심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의 빈구석을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 채우겠다는 돌이킴의 결심이 있게 하시므로, 십자가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은 히틀러의 유전자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참 하늘의 아들딸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